

# 대외관계의식의 변화

金 惠  
(외국어대학교 정치학)

- .....(目 次).....
1. 序論
  2. 전후 對外關係 의식형성요인
  3. 대외관계 의식변화요인
  4. 대외관계의식의 전개
  5. 결론

## 1. 序 論

戰後 40년에 걸쳐 전반적 국제관계와 한국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구조적 변화에 비하면 한국의 대외관계 변화는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의 대외관계는 남다른 제약을 지녀온 것이 사실이다. 처음부터 분단국가로 출발했고 아직도 냉전적 분단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 제약이 한국의 대외관계 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왔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외교는 냉전적 유산을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제적 교류는 그동안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범위에서 한정되어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특히 국내외적 변화가 두드러졌던 1970년대 이후부터 대외관계의 그려한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강하게 고개를 들었고 따라서 대외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려는 대외관계 의식의 변화가 한층 선명해졌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하루 아침에 대외관계에 대한 우리국민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수는 없었다. 우리의 대외관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수 없고 어떤 계속성을 띠고 있다면 자연히 우리의 대외 관계에 대한 의식에서도 변화와 함께 계속성이 있게 마련이다.

本稿는 해방후 40년에 걸쳐 대외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信念, 價值 및 態度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계속성을 추적하는데 바로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보다 큰 역점이 그러한 의식에서 무엇이 變하고 있는가를 밝혀 내는데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대외관계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연구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해방후 40년이란 장구한 시일에 걸친 한국국민의 대외관계 의식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적, 연구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설계된 주기적 설문조사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필자에게는 그러한 장기적 연구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려움은 그동안 한국인의 의식 변화를 다룬 연구는 많았으나 대외관계 의식의 측면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흔치 않다는 점이다.<sup>註1)</sup>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다. 막연히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 의식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 도대체 누구의 의식을 두고 말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대개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일반 국민은 국내문제와는 달리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 관심이나 명확한 이해를 들어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런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本稿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국내 主要日刊紙를 비롯한 定期刊行物의 관계자료에 주로 의존했으며, 정치지도자와, 알몬드가 말하는 「關心層」(attentive public)<sup>註2)</sup>의 대외관계 의식에 照準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따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대외관계 의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그밖의 요인들을 토대로 한 추측적 관찰이 배제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2. 전후 대외관계 의식 형성요인

해방 후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 의식을 형성한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日帝統治에 대한 역사적 기억, 충격적 국토분단과 그 원인이 된 東西冷戰의 국제적 환

(1) 한국인의 대외관계 의식에 관한 연구를 단편적으로나마 다룬 것으로서는 : 李永鎬, 「韓國人の 價値觀」(一志社, 1975), 洪承稷, 「韓國人の 價値觀 研究」(아세아문제 연구소, 1969) 崔平吉, 1982, 「社會 政治 意識의 變化」(유네스코韓國委員 著)등 몇 가지가 있다.

(2) 국민 가운데 外交政策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계층을 뜻하며 여기에는 輿論造成者 (opinion makers)가 포함된다.

경, 그리고 그러한 냉전체제하의 분단상황에서 빚어진 한국동란의 체험을 들 수 있으며 이에 추구하여 우리의 전국과정과 전국이후의 시기를 통하여 대외관계에서 강력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初代大統領 李承晚博士의 외교적 신념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 (1) 日帝統治에 대한 기억

일제통치는 해방과 함께 종지부를 찍었으나 그것에 대한 기억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 국민의 의식에 계속 큰 영향을 끼쳤다. 일반적으로 獨一佛, 獨一蘇, 中一蘇관계등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 갈등은 그 국민들의 國民的 神話體系, 歷史教科書 가운데 오래 살아 남게 마련이다.

따라서 가장 가혹했던 36년간의 일제통치가 한국 국민의 뿌리 깊은 日本不信을 형성했고 이것은 戰後 韓國 국민의 대외관계 의식속에서 가장 부정적인 심볼의 하나로 작용해온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한일회담의 타결이 朴大統領 政府의 운명을 걸어야만 했을 정도를 격렬한 국민의 반발에 직면했던 사실은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전후 신속한 재건과 경제성장으로 경제대국의 지위에 올라 선 일본의 對韓經濟進出이 활발해지면서 타산적이고 교활하며 표리부동한 일본이라는 부정적 日本觀이 새로운 韓日協力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대한진출이 형태를 달리하는 재침략으로 일각에서 경계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 (2) 韓半島 分斷과 東西冷戰

韓半島 分斷은 美蘇 兩勢力의 전후처리과정의 產物이고 그 양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東西冷戰을 통하여 고착되었다. 역사상 하나의 국가가 복수의 독립된 정치단위로 분활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나 2차대전후의 분단국가들은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분단을 경험하게 되었다. 정치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을 특징으로 하는 양극적 블럭 체제의 틀에 吸着된 남북한의 분단관계는 冷戰의 극한적 양상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동서냉전과 남북한 분단은 서로 밀접히 결부된 현상으로 한국인의 완고한 二個陣營觀과 외국에 대한 명확한 友敵區別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많은 실증적 연구는 냉전체제가 국

가간의 連繫를 결정짓는다는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sup>53)</sup> 사실 1950年代까지는 한국은 그 대외적 교류의 범위를 “자유진영”안에 국한시켰고, 공산국이나 중립국과의 어떤 교류도 갖지 않았다. 이 당시 한국은 공산국이나 중립국과 교류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지위에 놓여 있지도 못했으나, 그것 이전에 우리 국민은 그러한 교류를 당연한 도덕적 禁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산권과는 1960年代까지는 어떤 종류의 교류도 갖지 않았는데 사실 이때 우리 국민의 관심은 공산권과의 교류보다는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결속에 있었다.

### (3) 한국동란과 미국의 개입

6·25동란은 東西대립을 심화시키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대외의식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그 변화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共產主義와 同盟에 관한 냉전적 인식이 국민의 체험을 통하여 확고히 굳어진 것을 뜻한다. 사실 그 동란이 있기전까지만 해도 남한단 독정부수립을 둘러싼 찬반논쟁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러한 대외문제에 대한 감상적 반응과 잠재적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동란을 계기로 그러한 대외의식의 혼선이 제거되고 냉전적현실주의에 기초한 共產主義觀과 同盟觀이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남북간의 민족적 유대도 이념적 적대관계를 도저히 초월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 세력과의 공존은 불가능한 환상이고 오직 그 가공할 세력에 대한 군사적 봉쇄만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가능케 한다는 확신이 우리 국민 사이에 굳어진 것이다.

그리고 동란기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준 美國을 중심으로 한 友邦들의 역할로 해서 同盟의 가치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집착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국인이 갖게 된 美國에 대한 거의 전폭적인 신뢰와 기대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작년에 한국일보와 한국갤럽연구소가 공동으로 행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쟁재발의 경우 미국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93%나 되었다는 것은 최근 미국의 군사적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회의가 늘어난 상황에서 보면 놀라운 결과다.

---

그러한 研究로는 호프만(P.T.Hopmann)의 냉전적 긴장과 공산체제 내부의 단합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1967)와 스모커(P.Smoker)의 냉전적 긴장과 교역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1965)등 수없이 많다.

(한국일보, 1984) 이것은 한국동란 당시 미국이 행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이 우리 국민에게 심어준 美國觀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들어내주는 것이다. 한국에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가져다 준 美國에 대하여 한국인이 동란 이전에 가지고 있던 恩怨混合的인 감정은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友互一邊倒的인 감정으로 일변했다.

#### (4) 李承晚大統領의 외교적 신념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50年代까지는 한국외교에 관한 限 李承晚大統領의 一人支配時代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李博士의 外交的 信念이 외교정책만이 아니라 국민의 對外問題에 관한 의식에 큰 영향을 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李博士의 그러한 신념도 우리 국민의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보다 일반적인 “國民的 神話體系”의 한 반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그것이 국민의 대외의식의 어떤 부분을 심화시켰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李博士의 완강한 反共主義가 우리 국민의 공산주의 체험에서 얻은 反共意識을 더욱 강화, 조장한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인 孤主主義 형성에 끼친 初代大統領 워싱턴의 개인적 신념에까지 소급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2차대전후 西獨의 初代首相 아데나워나 프랑스 제5공화국 창시자였던 드골의 개인적 신념이 서독과 프랑스의 외교정책과 대외의식에 끼친 영향은 과소평가 되기 힘들다. 李承晚大統領은 그 共產主義觀에 있어서 아데나워의 그것과 흡사했다. 공산주의자는 기만과 간계의能手이며 그들의 어떤 유순한 행동도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있어서 두 老指導者는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李大統領은 美國民을 향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豫防戰爭의 필요성을 촉구할 정도로 강경한 반공 성향을 보였다. 그는 1954년 8월 2일 美國海外參戰在鄉軍人會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美國政府의 반공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미국민에게 호소하기까지 했다.<sup>[5]</sup>

그리고 오랜 反日獨立鬪爭의 경험을 가진 李大統領의 강한 反日意識 또한 한 국국민의 역사적 체험에서 나온 反日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의 완고한 일본경계론은 한국민의 그러한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

---

(5) 동아일보, 1954. 8. 3.

### 3. 대외관계 의식 변화요인

1970년대 이후 한국 국민의 대외관계의식에는 새로운 변화가 들어나기 시작한다. 그 변화를 갖어온 요인으로는 우선 한국인의 전반적 가치의식에 큰 변화를 일으킨 급속한近代化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兩極的 블럭體制가多極的勢力均衡體制로代替되고 이와 발맞추어 남북한 대화가 4半世紀餘의 단절의 벽을 뚫고 열린 것은 큰 변화의 자극이었다. 그리고美國의 世界的戰略과役割의 변화에 따르는韓美關係 재조정의 진통 또한 중요한 변화요인이었다.

#### (1)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

5·16혁명 이후 착수된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계기로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제1차5개년계획의 전략적 역점이 수출산업의 우선적 개발 육성과 수출증진에 있었음으로 이것은 자연히 한국의 적극적인 대외경제활동과 외교다변화의 촉진제가 되었다. 경제발전과 국제적 상호작용간의 관계에 관한 맥고완(Patrick J.McGowan)의 연구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가의 국제체제안에서의 상호작용 레벨도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sup>(6)</sup>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國際的相互依存관계의 구속을 늘림으로써 국제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가치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 자주성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키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한 실증적 연구는 경제적 低發展國이 대외적으로 “消極的一從屬的”인데 비해서 경제적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가 “積極的一自主的”(active-independent)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7)</sup> 그리고 고도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 외교의 자주성과 함께 實利的 價值에 대한 집착이 늘어난 것은 주목할 일이다.

#### (2) 국제체제의 다원화와 남북대화

이미 1960년대부터 고개를 든 중소분쟁과 미소화해의 움직임은 1972년 美·中共和解와 SALT 1단계 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한 美·蘇 땅뜨의 결실을 가

(6) McGowan and Shapiro, op.cit. pp.113-114

(7) 맥고완은 1963년~1964년 기간에 걸친 30個 아프리카국가의 外交政策活動類型을 조사분류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고 있다. Ibid.p.106

져왔다. 이것은 전반적 국제체제의 탈냉전적 구조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한반도 상황에도 변화의 충격을 가했다. 그 충격에서 나타난 한 결과가 1972년 남북대화였다. 물론 남북대화는 1973년에 가서 중단되고 말았지만 분단 이후 남북한이 갖었던 직접적 대화로서는 처음이었고 남북한간의 직접적 대화와 협장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였다.

일반적으로 다원적 세력균형체제 하에서는 국가들의 외교정책이 伸縮性 있고 實用的이고 非理念的이며 또한 自制的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가설이 있다.<sup>(註8)</sup> 그 밖에도 국제체제적 환경이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미치는 “社會化 影響”에 대한 언급은 흔히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가령 朴正熙大統領의 “6·23宣言” 같은 것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그런 영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적응에 대한 관심은 이미 그 선언이 나오기 이전부터 여러 사람에 의해 표현되고 있었다. 도대체 남북대화부터가 일차적으로 미·중공화해라는 외생적 충격에서 나왔었다는 사실이 국제체제적 환경과 한국의 대외적 행위 사이에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남북대화는 바로 그러한 국제적 변화를 우리 국민에게 실감있게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남북대화가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공산주의자와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심화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는 측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것은 제쳐 놓고라도 북한을 하나의 政治的 實體로 우리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의 변화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대외의식에서 종전의 이념적 경직성이 약화된 것을 뜻한다.

### (3) 美國의 世界的 戰略 變化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 의식은 팍스·아메리카나의 전성기에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의존과 신뢰는 전후시대를 통하여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월남전을 통하여 들어난 군사적 개입의 한계와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로 불가피하게 된 팍스·아메리카나의 쇠퇴는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 의식 변화의 큰 자극이 되었다. 1969년 닉슨·독트린의 발표로 미국의 새로운 세계적 전략이 명백해지면서 그 충격의 波長은 한국에도 강하게 파급되

(8) 그런 가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카프란(Morton Kaplan)의 가설을 들 수 있다.

었다. 1971년 6월까지 2만명의 주한미국감축이 실현되었던 것이나 1975년부터 미국의 대한무상군사원조가 끝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을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다룬 미국의 인식과 미국을 순전히 직접적 쟁무관계에서만 생각했던 한국의 인식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들어난 것이다. 전후 국제적 상황의 변화가 영국민에게 미국과의 “特殊關係”에 대한 미련의 청산을 강요했듯이, 국제적 화해추세가 “血盟”으로서의 미국의 대한 韓國民의 전폭적 신뢰를 동요케 만들었다. 이것은 종래 한국인이 갖고 있던 뚜렷한 友敵區別 개념을 혼들어 놓은 것으로, 어떤 국가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호와 적대는 항구적인 것일수 없으며 그것은 가변적일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동맹의 기초가 情誼가 아니라 利益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 4. 對外關係意識의 展開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 의식에서 지난 40년간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추적하는데 있어서는 다섯개의 시기로 갈라 살펴 보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의 다섯 시기로 구분하는 것은 통상 10년을 한 연대로 묶는 일반적 시기구분방법이라는 것 이외에도 한국의 대외관계의 轉機가 될만한内外의 큰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이 대체로 그러한 시기구분과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 1940년 : 混線期

해방으로부터 한국동란 발발 이전까지의 이 시기는 국가건설의 시기였으며 정치적 혼란의 시기였다. 새로운 독립국가의 성격과 이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이 시기에 있어서 대외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서 혼선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었다.

오늘의 세계에서 국가가 아직도 기본적인 국제적 행위자(actor)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떤 한 국가의 성격과 이념을 둘러싼 국내적 분열은 그 국민의 대외문제에 대한 가치구조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당초에 그런 분열은 左右翼間의 대립에서 나타났고 뒤에는 우익 민족진영 내부의 갈등에서도 나타났다. 좌우익 간의 贊託과 反託을 둘러싼 격렬한 대립에 이어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찬반세력간의 대립이 우익 민족진영 내부에서 일어났다. 1948년 大韓民國政府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左右翼間의 대립과 우익 민족진영 내부의 갈등이 뒤얽혀 일종의 혼돈상태를 빚고 있었고 정부수립 이후에도 한국동란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後者의 갈등, 즉 李承晚을 중심으로 하는 單選單政派와 金九, 金奎植을 중심으로 하는 南北協商派간의 갈등은 계속 존재했었다.<sup>(9)</sup>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한반도를 분단한 美蘇間의 漸增하는 대립과 美國의 확고한 한반도정책의 결여, 민족진영 지도자들의 분열, 그리고 한국국민의 국제적 오리엔테이션의 未熟으로 해서 조장된 것이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單選單政派는 점차 양극화되어 가는 국제체제의 제약아래 놓인 분단 한국의 현실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한 자유주의 정부를 南韓만의 단독선거로나마 조속히 세우는 것만이 당장 가능한 오직 한가지 독립 실현 방법이라는 현실주의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승만박사는 1946년 6월 유명한 “井色發言”<sup>(10)</sup>을 통하여 처음으로 그의 單政構想을 비친 이후로 가회 있을 때마다 單政수립의 불가피성과 남북협상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승만박사의 강경한 反蘇, 反共主義 노선과 單政에의 집착은 애당초 中間派의 협조를 얻어 막연히 左右合作方式의 한국문제 해결에의 적용을 시도했던 미국정부 및 미군정당국과의 갈등을 빚을 정도였다. 그 한 예로 美國務省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조선의 정치단체가 연합국의 합의로써 약속된 조선의 독립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박사를 비난했으며 이에 응수하여 이박사는 “미국 무성내의 일부관리가……공산주의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하고 하지 中將을 左翼에 “好意”를 갖고있는 것으로 몰아 세웠다.<sup>(11)</sup> 그러나 이 老指導者의 반공주의적 신념과 태도는 마샬의 미국무장관 취임을 계기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미국내의 反蘇, 反共의 傾向에 따라 미국에게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승만박사의 그려한 집념은 확고한 親美反共國家로서의 한국의 독립 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했

(9) 그 단적인 실증의 하나로 1950년 5월 30일의 제 2대 국회의원에서도 남북협상파의 진출이 많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0) 美蘇共委의 결렬이 전해진 다음 湖南遊說에 나선 李承晚은 井色에서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南方만이라도 臨時政府 혹은 委員會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1946·6·4

(11) 東亞日報, 1947·1·26

다는 사실이다. 올리버(Robert T.Oliver)는 이 시기의 이박사의 역할이 끼친 영향에 관한 언급에서 “…1945년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사건이 흘러가는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기대대로 되었으리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sup>123</sup>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박사의 현실주의적 신념은 해방으로 고조된 민족주의적 정열에서 민족분단과 이념대립의 현실적 제약을 초월하여 통일민족국가로서의 독립을 추구하고자 했던 南北協商派의 理想主義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이들 협상파는 양극화를 지향하던 당시의 세계정치의 추세로부터 유리된 민족자주적 통일실현을 모색했을뿐 아니라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점에서 單選單政派의 현실주의적 태도와 분명한 대조를 보였으며 單政은 곧 統一反對로 等式化하고 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감정적 경향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남북협상파의 지도자였던 金九는 1947년 2월 10일에 발표한 “三千萬同胞에게 泣告함”이라는 성명서 가운데서 單政을 주장하던 이승만의 獨立促成國民會와 김성수의 韓國民主黨을 “美軍政의 卵翼下에서 육성된 그들”, “미군정의 앞잡이” 또는 賣國賣族의 一進會式 先覺者”로 규탄하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관대한 溫情”을 촉구하면서 “마음의 38선”을 무너뜨리도록 호소하고 있음을 볼수있다.<sup>124</sup>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협상파의 감상에 가까운 反美, 反外勢的 民族主義감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과는 달리 해방후 오래토록 한국 국민의 대외관계 의식에서 두드러졌던 反日的 傾向에 있어서는 이 시기부터 국내세력들 사이에서 강한 공통성을 찾을 수 있었다. 가혹했던 日帝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아직 생생했던 이 시기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지도자나 일반국민은 日本에 대하여 反感과 懷疑 그리고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 시기에 걸친 이승만의 대일관계 발언을 훑어 보면 對共防衛를 위한 韓日關係改善의 필요에 대한 의식 철저한 對日不信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美國에 대하여 日本再武裝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도 또 한 한편으로는 “共通安全”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 필요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sup>125</sup> 이승만대통령이 1949년 8월 초에 “鎖國主義를

(12) Robert T. Oliver著. 이승만비록(박영일역, 서울 : 한국문화출판사, 1982) p.129

(13) 엄항섭편, 김구주석, 최근언론집(서울 : 삼일문화사, 1948) pp.813 : 손세일저, 이

승만과 김구(서울 : 일조각, 1970) pp.287-289에서 재인용.

(14) 동아일보, 1949.2.16 및 동지 1950.2.18 참조.

“排除함”이라는 대통령 특별 담화문<sup>(15)</sup>을 발표한 것을 보면 그로서도 국민의 反日感情은 우려할 만한 것이었던 것 같다.

## (2) 1950년대 : 冷戰的 意識 定着期

1940년대가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 의식에 있어서 混線期라고 할 수 있다면 1950년대는 定着期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기틀을 잡기 시작한 冷戰的 意識構造가 1950년 한국동란으로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이승만의 강경한 反共主義는 국민에게 전에 없이 절대적인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공산주의집단의 南侵은 공산주의의合理性에 대한 일부세력의 가정을 봉괴시켰으며 확고한 二個陣營觀(the two-camp image)이 우리 국민의 의식속에 못박히게 되었다. 더구나 군사적개입의 전세계적 봉쇄정책으로 전환한 美國의 적극적 군사개입으로 對美同盟關係에 대한 새로운 신뢰와 집착을 갖게된 것은 우리 국민의 그러한 의식 정착에 크게 이바지 했다.

1950年代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美國의 역할이 한국 국민에게 韓美關係의 對外關係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절대적인 것으로 재인식케 만든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으로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1953년 10월 韓美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한 것은 1800年 이래 그러한 성격의 군사적 공약을 극력 기피해온 국가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고 동란후의 한국의 戰災복구 및 방위력 증강을 위한 관대한 군사·경제원조의 기여는 실로 큰 것이었다. 1945~1960년間 GARIOA 및 ECA 등 救護, 戰後復舊 및 經濟復興을 위한 對韓無償援助는 1,214百萬달라로 집계되었고, 미국의 한국동란중支出費用은 180 億달라에 달하였다.<sup>(16)</sup> 한국의 안보와 경제건설을 위한 미국의 이러한 기여에 더하여 미국은 이 시기에 유엔內에서의 지배적 영향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부각시키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한국 국민은 한·미관계를 情誼的 성격으로 받아 드리고 미국과의 同盟의 信義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한국동란 이후의 東西冷戰의 절정기에 있어서 자유국가들의 對美安保依存은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특히 한국의

(15) 동아일보 1949.8.3 및 동지 1949.8.4.

(16) 외무부, 한국외교30년 : 1948~1978(서울, 1979). p. 36.

경우 국민의 안보의식에 있어서 對美依存性向은 아주 강했다. 바로 1950年代가 한국외교의 총력이 對美安保外交에 집중되고 있던 시기였다는 사실이 한국 국민의 그러한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실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외교는 그 대상 범위에 있어서 미국을 위시한 “自由友邦”과의 외교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나마 對友邦外交에 있어서도 다양성 있는 내용의 외교가 아니라 安保外交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국민의 외교에 대한 개념부터가 그때의 狀況的 制約性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무척 단순한 것이었다. 정치지도자들의 관심 또한 對友邦安保外交에만 있었다. 한국 국민의 국제적 오리엔테이션이 극히 미숙한 단계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전쟁도발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安保 이외의 다른 문제에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국민의 대외관계의 식에서도 安保一邊倒的인 성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시기에 걸쳐 이승만과 한국정부의 지배적인 외교적 관심 또한 한국안보를 위한 美國 및 다른 友邦들의 관심과 지원을 極大化시키는데 집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美國과 西方에 대한 安保外交에의 강한 집착은 反共的 同盟關係를 變質 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950年代를 통하여 가장 강하게 노출되고 있었던 한국 국민의 관심은 美國의 강경한 반공정책의 일관성 유지여부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불안과 “第三勢力”的 중립주의적 경향에 대한 경계심이 한국의 조야에서 자주 표시되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승만박사의 경우 미국과 서방국가의 대공산권정책에서 나타나는 어떤妥協的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자주 표시했고 미국의 태도를 對共強硬政策으로 유도하고 물어두기 위하여 때로 계산된 모험까지 감행했다. 가령 1953년 6월의 반공포로석방 결정은 그러한 모험적 결정의 실례로 休戰會議에서 보였던 미국의 有和的 政策을 反轉시킬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sup>(17)</sup> 사실 국내야당 세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미국과 西方國家들에 대해서도 “환영 못받는 완고성”을 내보임으로써 자주 不和의 원인이 되었던 李大統領의 말과 행동은 第三世界民族主義에서 나타나는 反美的 性向과는 전혀 그軌를 달리하는 것으로 美

---

(17) 올리버는 이승만의 포로석방결정에 언급하여, “이박사의 희망은 이와 같은 포로석방이 판문점에서 혼란과 상호비난의 사태를 야기시키고 그때문에 휴전회담을 즉시 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國을 가능한限 강경한 반공정책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安保를 강화시키려는 典型的인 冷戰的 保主主義의 표현이었다.<sup>18)</sup>

이미 1950년대 전반기부터 이승만박사의 정치적 권위주의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그의 對內外政策에 대해서는 반대와 비판이 많았다. 이박사의 對美政策이나 對日政策 또한 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의 與野는 대외문제를 다루는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외정책의 기본목표에는 차이가 없었고 냉전적 보수주의 경향에서는 공통되어 있었다. 야당 역시 여당과 마찬가지로 對美安保外交에 편중적 관심을 보였으나 다만 美國과 日本等西方國들을 자극한 이박사의 완고한 외교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을 따름이었다.

第三世界국가들의 반동會議가 열린 이후인 1950년대 後半에 들어와 親美一邊倒外交에 대한 약간의 반성이 엿보이고 있기는 하다. 가령 1958년1월 曹正煥外務長官은 新年の 外交目標를 천명하는 가운데 “中立國家와의 親善”에 역점을 둘 것을 선언한 사실이 있다.<sup>19)</sup> 그리고 “外交와 이데오로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고방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先覺的” 의견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sup>20)</sup>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당시의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의식의 전반적 전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亞阿中立國의 票가 늘어가는 유엔內에서의 한국문제와 관련된 대한민국 支持票의 현상유지에 대한 불안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또한 1950년대는 韓日關係의 改善을 촉진할수 있는 外的 刺戟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 국민의 排日意識은 그대로 연장되었다. 한국동란으로 공산주의 위협이 한일 양국의 공통과제로 등장했고

(18) 이승만은 휴전회담반대, 반공포로석방으로 미국을 자극했을뿐 아니라, 1954년2월 제네바會談개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경악할 정책전환”(동아일보, 1954·3·1)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1954년11월 “남북총선거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言及하는 가운데서 “구라파 몇나라에서 平和를 유지한다는 名目하에 共產과 共存主義를 가지고 또 선동하는 모양”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一部 西方國家들의 對共宥 and 政策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9) 동아일보 1958. 1. 19.

(20) 가령 그런 여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例로는 東亞日報1959·1·17 “外交活動의 根本的 缺陷 是正하라”는 社說을 들수 있다. 그리고 新太陽 1956年8月號 柳光烈의 “우리는 兩大陣營의 모르못트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時評도 그런例의 하나가 된다.

동란중인 1952년에 한일회담이 시작되었으나 久保田安言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 한국 국민의 對日感情은 오히려 더 자극되었다. 더구나 美國의 韓日兩國에 대한 관심의 불균형을 깨닫게 된 것은 미국에 대하여 情誼的 기대가 커던 한국 국민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 실망은 일본에 대한 반감을 더 자극하는데로 연결되었다.

### (3) 1960년대 : 變化釀成期

1960년 4·19革命으로 李承晚時代가 종언을 고하게 된 것은 한국의 국내정치나 대외관계에서 한 시대를劃하고 중대한 전환적 계기가 되었다. 許政過渡政府로부터 民主黨政府에 이르기까지의 一年餘의 기간에 걸친 국내정치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대외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잠복해있던 갖가지 異見이 표출되는 일종의 과도기적 양상이 재현되었다. 한국동란 이전의 建國期에 볼수 있었던 分裂과 혼란이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4·19革命과 함께 부각된 일부 진보세력에 의해서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自主的, 協商的 統一논의는 한국동란 이후의 냉전절정기를 통하여 잠복해 있던 民族主義의 理想論의 재출현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논의는 1950년대를 통하여 한국에 뿌리 내린 冷戰의 保守主義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이들 진보세력의 統一至上的 論理는 그나름대로 강한 민족주의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미군철수와 中立化統一方案 같은 급진적 주장을 앞세운데서 중립화를 통한 적화의 가능성은 우려하는 국내 보수세력의 지도자들과 다수 국민에게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sup>\*\*\*</sup> 유약한 보수정권이었던 張勉內閣은 이 분열과 불안을 수습할 수 없는 취약성을 들어냄으로써 보다 강력한 정권의 대두에도 걸을 터놓았다.

5·16군사혁명은 이 불안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이 혁명은 “反共을 제일의 국시로 한다”는 공약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反共的 성격을 한층 더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한반도 “唯一合法政府”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손상시키는 공산주의자와의 어떤 타협의 가능성도 이를 엄격히 배제했다. 어떤 南北協商論이나 그런 논리에 기초된 統一方案의 논의 또한 철저히 금지되었다.

---

(21) 1960년 7·29총선거에서 혁신계는 전국 233개 민의원 선거구에서 156명이 입후보하여 겨우 5명밖에 당선되지 못하였으며 참의원 당선자는 겨우 2명밖에 안되었다. 이것은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저조함을 나타낸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이미 1960년 8월 民主黨政府에 의해서 공개된 외교七原則<sup>(22)</sup> 가운데 첫번째 원칙인 國土統一方案의 單一化와 유엔路線에 입각한 民主統一의 實踐 원칙을 재확인한데 불과하나 그 이념적 태도에서 한층 더 강경한 反共의 경향이 명확히 들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第三共和國初期의 대외관계 의식은 第一共和國 시대의 冷戰的 保守主義로부터 일보의 전진도 없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1960년대부터 한국의 대외관계 의식에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를 자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한국외교의 냉전적 기반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사실이었다. 日本과 西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경쟁자로 서서히 부각되었고 “第三勢力으로서의 유럽”의 자주화를 표방하는 골리즘의 대두가 美國 중심 뿐만 아니라 대내적 결속을 이완시켰을뿐 아니라 美蘇의 접근추세와 중소분쟁으로 인한 공산뿔의 多元化 경향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냉전적 동맹관에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4·19革命을 계기로 표출된 민족주의적 자주화의 정열을 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특히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北韓에 대한 安保條件의 근원적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목표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요청에 따라나온 것이 1962년부터 착수된 경제개발계획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근대화 작업이 대외관계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自立經濟의 실현만이 한국安保와 對外的 自主性의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될수 있다는 신념의 형성이었다.

이러한 政策目標의 성취를 위해서 첫째로 전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對美安保유대의 확고한 유지와 둘째로 北韓의 적극적 평화공세에 의한 교란과 국내적 분열 및 저항으로부터 사회적 안정을 지키는 것이 第三共和國政府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한국정부가 보다 강경한 형태로 親美, 反共노선을 강조하게 만든 배경이었다.

그러나 신속한 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의 조성과 유지에 최대의 역점

(22) 鄭一亨外務長官에 의해 공개된 新政府의 外交方針으로서 對日外交의 早速正常化 원칙을 제하고서는 대체로 자유당정부의 방침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제일 첫번째 나오는 國土統一方案의 單一化에 관한 부분은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統一논의에 충격을 받은 民主黨政府가 그 문제에 관한 保守的立場을 밝힌 것이다.

이 있었던 1960년대의 한국외교에 있어서는 經濟的 實利 추구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國內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 1965년의 韓日國交正常화와 역시 같은 해에 국내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한국의 越南派兵決定이 모두가 일차적으로 그려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1964년 朴正熙大統領의 西獨訪問 또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경제적 동기에 치중된 한국외교의 새로운 경향은 외교의 多邊化와開放化으로 길을 열어줌으로써 종전의 한국외교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오로기적 성격을 서서히 緩和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령 그 단적인 예의 하나로 이미 1965年末로부터 할슈타인原則의 신축성 있는 적용의 불가피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對中立外交現實化論이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3)</sup> 1960年代 중엽, 특히 “개방의 해”로 불리우던 1966년 이후로 對美一邊倒外交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外交의 自主的 選擇幅을 확대하고 “反共이데올르기의 尖兵”으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이미지를 修正하려는 反省論이 강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런 논의가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외교의 反共的 基調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實利를 추구하면서도 이데올르기적 반공외교를 버릴수 없었으며 自主性을 추구하면서도 적극적 統一 이니시티브를 기피하고 연기했다. 朴大統領은 1966년6월 儒城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金日成을 6·25전쟁도발戰犯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으며, “남북통일문제는 70年代後半期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sup>(24)</sup>

결국 1960年代는 한국 국민의 대외관계의식의 전개과정에서 變化의 酿成期였으면서도 냉전적 의식의 흐름과 새로운 가치의식이 갈등을 빚고 있던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1970년대 : 變化期

이미 1969년에 발표된 닉슨·독트린과 中共黨九全大會의 결과는 1970年代의 變化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第二次5個計劃이 성공적인 마무리단계에 있었던 1970年에 들어서면서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變化가 시사

(23) 동아일보, 1965. 12. 2.

(24) 동아일보, 1966. 6. 8.

되었다. 1970年光復節에 나는 朴大統領의 “8·15宣言”은 對北韓政策의 신축성 있는 變化 용의를 밝힌 것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1970년대의 상황발전은 한국의 대외관계 전반에 걸쳐 변화의 충격을 몰고 왔다. 1971년6월까지 6萬4千各의 駐韓美軍中 2萬名의 감축이 이루어진 것은 월남 전으로 인한 미국의 전반적인 封鎖의 약화를 한국 국민에게 실감케 했을뿐 아니라 더욱 놀라웠던 것은 1972년의 미소간의 SALT I 타결을 계기로 한 데땅 뜨의 성립과 극적인 美·中共共和解였다. 특히 美中共共和解는 이 兩國이 한국 동란 당시에 군사적 충돌관계에 놓였었고 중공이 가장 教條的 反美勢力이었다는 사실로 해서 냉전체제의 불괴감각을 가장 실감있게 한국 국민에게 전달해준 사건이었다.

바로 그러한 충격의 파급효과는 분단 4半世紀餘의 단절상태에 숨통을 트는 남북대화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그 대화의 서막을 장식한 “7·4共同聲明”은 民族·自主·平和統一의 원칙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확인함으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는 강렬한 민족주의적 공감이 쌍방간에 표시되었다. 그리고 남북간에 赤十字와 남북 조절위원회의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활발한 통일논의가 전개되었다. 비록 그 대화가 파열되었던 기대와는 달리 단명으로 끝나버리기는 했지만 이미 1970년대의 내외적 상황변화의 압력은 일단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의식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 사례로 1973년6월에 발표된 “6·23宣言”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종전에 명분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唯一合法政府”的 주장과 單獨代表權의 論理로부터의 사실상의 후퇴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 사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선언을 통하여 공산권에 대한開放政策의 의지를 명백히 한 점이다. 그리고 공산권에 대한開放의 정책은 여론의支持를 받고 있었다. 1975년에 발표된 한 調査<sup>註29</sup> 따르면 공산국가와의 交易에 찬성의 반응을 들어낸 사람이 일반국민 가운데 48%, 그리고 국회의원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국가와의 外交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찬성이 일반국민중 53%, 국회의원중 65%를 나타내고 있다. 1973년 6월27일 대한민국 국회는 “6·23平和統一外交宣言은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염원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5천만민족의 지지를 담은 것임으로 이를 전폭적이고 超

(25) 이영호, 한국인의 가치관(서울:일지사, 1975) pp. 74-81.

黨的으로 지지한다”<sup>註四</sup>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여야간의 적지 않은 갈등의 시기에 이례적인 초당적 합의를 보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우리국민의 대외관계의식에서 하나의 지배적 특징으로 나타났던 이데올르기 偏執의 성향이 현저히 弱化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문제를 이데오로기적 기준에서보다 利益의 기준에서 보고 평가하게 된 것은 의식의 합리성이 그만큼 증가된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이데오로기적 대결의 양상이 후퇴하는 국제정치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1960년을 통한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에 의해서도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외관계에서도 우리 국민은 좀더 프라그마틱한 價値性向을 보이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對美依存度를 되도록 줄이고 對外的 自主性을 높이는데 극히 의식적인 태도를 우리 국민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70年代에 와서 종전의 對美一邊倒外交는 심각한 狀況的 制約에 직면했으며 강력한 국내적 비판에 의해서 도전받았다. 미국의 세계적 역할은 위축되었고 한국은 미국 주도하의 유엔에서 누렸던 안이한 유엔外交의 便宜를 놓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한미관계의 진통이 朴東宣事件과 카터大統領의 駐韓美軍撤收計劃등을 둘러싸고 계속되었다.

따라서 駐美關係를 단순히 二國關係의 次元에서만 보려고 하던 종전의 좁은 視角으로부터 벗어난 世界政治的 맥락에서 그 관계를 이해하려는 확대된 시야를 갖게되었으며 미국의 世界戰略의 일환으로서의 對韓政策에 새롭게 조명되었다. “도대체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자주 되풀이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그리고 경제, 군사등 분야에서 對美依存을 줄이는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1978년에 비록 주한미군철수계획이 일단 보류되기는 했어도 주한미군철수계획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되었을 따름이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갖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한미관계의 기반을 安保一面의 것으로부터 보다 多面의인 것으로 확충시켜 감으로써 그 기반의 취약성을 보충하려는 노력 또한一方的 對美依存관계를 止揚하려는 시도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韓日關係가 1970年代 前半期의 몇 가지 불편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26) 조선일보, 1973. 6. 28.

고 점차 긴밀화된 것은 그런 시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일이었다.

#### (5) 1980년대 : 成熟期

1970년대가 미처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잇달는 국제적 충격이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의식의 강요했던 變化的 시기였다면 1980년대는 이미 기정 사실화된 그 변화들이 우리 국민의 의식속에서 소화된 성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물론 1980년대에 있어서도 충격을 줄만한 국제적 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1979년末에 일어난 아프카니스탄 事態는 1980년대초부터 세계를 진장시키고 있었다. 1983년의 KAL機격추사건과 아웅산事件은 우리국민에게 아주 강하고도 직접적인 충격이 되었다.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 共產主義 觀을 냉전시대의 그것으로 환원시킬만한 사건일 수도 있었다. 남북대화에서도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결렬 되었다가 1985년에 남북간의 활발한 접촉과 대화가 다시 재개되고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 실현이라는 극적 진전도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대화의 장래에 대한 不安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다. 일부 대학생의 美文化院첨거사건과 함께 최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호주의적 보복조치의 연속적 발표는 보기에 따라서는 전통적 한미우호관계에 균열을 초래할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될수도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 두드러진 변화는 그 사건들의 충격은 잘 흡수되고 소화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 비해서 충격의 영향은 그 범위에서 국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이런 충격적 사건들이 우리 국민의 대외문제에 대한 판단의 균형을 침사리 흔들어 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1981년4월에 발표된 한국민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외정책에서는 對美一邊倒의 脫皮가 31%, 비동맹외교의 지지가 25%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정책에서는 對北韓優位確保와 南北對話에 대한 긍정반응이 각각 39.4%와 35.8%로 나타나고 있다.<sup>註28</sup> 이것은 아프카니스탄침공사건 이후의 긴장된 新冷戰的 상황에서도 脫冷戰的인 多元化추구의 경향이 강하다는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견

제와 대화를 통한 화해 지향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1984년 6월에 발표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보의식의 변화와 일각의 反美的 傾向에 대한 우려가 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6·25와 같은 戰爭再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64.1%, 그리고 그럴 경우의 美國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놀랍게도 93.6%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sup>28)</sup> 이것은 냉전적 의식의 잔재로 돌려버릴 수 없고 국제적 현실에 대한 보다 냉철한 인식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옳을 것이다. 가령 한국동란 재발의 경우 미국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인 것은 레이건대통령의 對共 강경정책에 고무된 점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美國의 한국방어에 대한 戰略的 이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변화의 반영으로 평가되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태도에 대한 一喜一悲의 불안정한 반응이나 情誼的 기대는 훨씬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社會一角에서 발견되고 있는 反美的 경향의 영향이 극히 그 범위에서 局部化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그리고 분단 이후의 남북관계에서 처음볼 수 있었던 북한으로부터의 水災物資 접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우리 국민의 대외관계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틀리지 않을 것이다.

## 5. 結 論

남다른 분단의 제약이 해방 40년에 걸친 한국의 대외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어 온 탓으로 대외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식 변화는 그 진전에서 느릴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때늦게 냉전적 의식구조로부터의 탈피가 심심치 않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변화의 느린 진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60년대부터 酿成되기 시작한 그러한 의식의 변화는 1970년대 이후 들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에 고착된 냉전적 의식으로부터의 탈피와 변화는 이제 反轉不能한 하나의 확고한 추세가 되고 있으며 보다 自主的이고 開放的이며 利益지향적인 대외관계의식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대외문제에 임하는 우리의 가치 의식에서는 이데오로기적 偏向이 약화되고 실용주의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늘어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대외관계 의식에서 이러한 발전적 지향은 계속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 바람직하다. 그러나 끝으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일은 우리의 脫冷戰的 指向이 아직도 엄연히 잔존해있는 한반도의 냉전적 현실로부터의 도피일수는 없으며, 우리의 自主的 指向이 국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의 지혜를 거역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